

“디지털 콘텐츠로 성경을 살어나게” VBS 강습회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 주최
현장 30교회, 온라인 70교회 참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의 첫 소절이다. 쇼츠와 릴스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이 소절에 얼마나 공감할까?

온라인 콘텐츠가 아이들의 눈과 손을 사로잡고 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진,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환경이 표준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의 눈과 귀를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릴 수 있을까? 현란한 미디어에 점령당한 아이들의 눈과 뇌를 어떻게 리셋할 수 있을까?

“히즈쇼 사역을 같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만났다. 현장 교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공급하고 싶은 마음에 현장 교회를 방문하면서 필요한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팬데믹 이후 교사들이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가 협력해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VBS 무료 강습회를 진행했다. ©기독일보

데, 사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앞서다 보니, 여러 가지 문법들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바뀌

게 되었다.”

히즈쇼 책임연구원 이병목 목사(동양선교교회 부목사)는 히즈쇼 사역이 이와 같은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눴다.

4월 26일(토)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가 팬데믹 이후 한인 교회

를 돕기위해 히즈쇼(대표 백종호)와 손잡고 ‘여름성경학교’(VBS) 강습회를 열었다.

히즈쇼는 2011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시작된, 기독교 컨

텐츠 기업으로, 올해는 특별히, 동양선교교회와 협력해 한인 교회들의 필요를 반영한 영어 버전 히즈쇼 VBS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날 강습회는 현장 참석뿐 미전역에서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김지훈 담임 목사의 환영 인사와 기도 후 OMC 찬양팀과 함께 참석자들이 히즈쇼에서 제공하는 찬양과 율동을 배웠고, 이어서 이병목 목사의 주제강의가 있었다.

그는 이번 히즈쇼 VBS의 주제는 ‘사랑’이라며, 사랑은 결국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기이라며, 아이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교회와 한인교회의 VBS를 비교하면서, 한인교회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눴다.

“미국교회의 VBS는 테마파크에 들어간 것 같이 으리으리하게 공간을 꾸민다. 한 마디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기간, 아이들이 부흥하는 기간이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英 낙태법 시행 후 57년간 1천만 명 이상 낙태로 사망

1시간마다 31명 생명 중단

1968년 영국에서 낙태법이 시행된 이후 57년 동안 약 1,074만 1,486명의 태아가 낙태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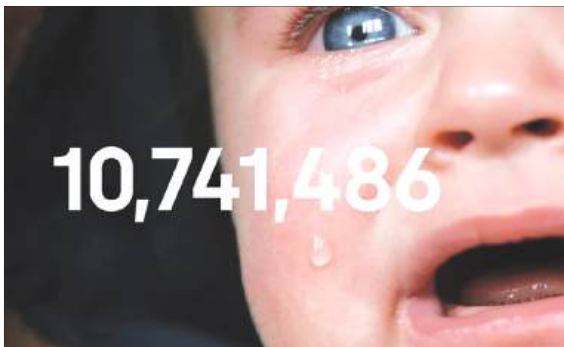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최근 “낙태 건수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낙태율은 약 2분마다 1명, 1시간마다 31명의 생명이 중단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영국 보건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낙태가 2022년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전년대비 3만 7,253건 증

가한 25만 2,12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스코틀랜드에는 1만 8,207건, 북아일랜드는 2023년 3월 말까지 전년대비 23.53% 증가한 2,168건이었다.

친생명단체 ‘영국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영국과 웨일스에서 낙태율이 급증한 것은 2020년 3월 ‘DIY’ 가정 낙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낙태 규정이 완화되면서, 의료진과의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나 온라인 상담만으로 우편을 통해 낙태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

기 때문이다.

영국생명권의 캐서린 로빈슨대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967년 낙태법 시행 이후 1,074만 1,486명의 생명이 (낙태로) 희생됐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며 “영국의 낙태법은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부적합하다.



© Right to Life U.K.

생명권을 박탈당한 각 개인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다”고 했다.

신미של 기자 → 12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 상여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이비사 USA 이사장
(전)남가주 고위임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이용규 선교사 “믿음은 번지점프… 뛰어내려야 경험”

동부사랑의교회 새생명축제로 말씀 전해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는 4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새생명축제’를 개최하고, ‘내려놓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 집회를 열었다.

26일(토) 저녁 집회에서 이용규 선교사는 시편 23편 1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말했다.

그는 “믿음의 여정은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의 초대”라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전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향을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민자들의 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요셉의 모든 형제들,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들은 광야에서 거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다윗도 집 없는 삶을 살았다. 유대 백성 전체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품, 고향을 떠나 낯선 문화적인 세팅 가운데 오셔서 머리 돌 곳 없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모두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다 순교했다. 고향 땅에서 돌아가 편하게

여생을 마친 사람은 없었다.”

이민자의 정체성, 경험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

그는 이어 “하나님은 고향을 떠난 사람의 불편함과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이전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인도받도록 하신다”며, “이민자의 정체성과 경험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 속에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성 패트릭, 성녀 니노, 율필라스 등 흩어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사례를 소개하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민자 교회를 통해 중동과 서구 사회를 다시 복음화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전도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전도 전략이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민자들을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를 복음화한 성 패트릭은 영국 소년이었으나 해적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에 노예로 팔려갔다. 나중에 영국으로 탈출했지만, 자신이 노예로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루지아, 지금의 조지아에는 니노라는 성녀가 있었다. 그는 터키 갑바도기야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 가정은 노예로 팔려 조지아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왕녀의 병을 기도로 고쳐 왕국 전체를 변화시켰고 조지아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 민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율필라스는 게르만족에게 붙잡혀간 그리스어를 쓰던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최초로 게르만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게르만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대학교 설립자) ©동부사랑의교회 Youtube

“하나님은 지금도 이민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이집트에 중동의 전쟁 때문에 수단 난민, 예멘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경찰이 제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영어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히잡을 쓰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인교회 신앙 단절, 사탄의 전략

또, 이용규 선교사는 한인 교회 내 신앙 계승이 단절된 현상에 대해, 1세들이 이민자로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비주류로 살아가면서, 2세들을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사회적 성공에만 가치를 두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님은 한인 교회를 통한 특별한 부흥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나 사탄은 1세대와 2세대의 단

번지점프 같은 믿음의 길...

설교 후반부, 그는 믿음을 번지점프에 비유했다. 뛰어내려야만 하나님의 불드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믿음 생활에는 번지점프 같은 요소가 있다. 그런데 번지점프를 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 길을 가보았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내 발이 높은 곳을 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는 월급 받지 않는 삶, 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몽골에서부터 살아왔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행 잔고를 한 번도 100불 이하로 내려가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쓴 적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런 하나님,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을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중동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 중 코스타(KOSTA)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결심한 그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선교사의 길을 자원해 7년간 몽골에서 선교했다. 2012년부터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디지털 콘텐츠로...>에 이어서

“그러나 작은교회들은 인원 부족, 공간 부족, 재정 부족, 콘텐츠 부족 등으로 VBS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히즈쇼 사역을 하며 여러 교회를 방문해 각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히즈쇼의 사역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콘텐츠가 중요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공동체, 미주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나아갈



이날 교회 본당에는 성경박물관이 설치되어, 히즈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앱으로 성화를 카메라에 비추면, 성화가 움직이며 히즈쇼 캐릭터가 나와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히즈쇼

때 우리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미주의 작은 한인교회들이

인원, 재정, 공간 등으로 VBS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있으며, 이 부분을 콘텐츠로 보강하려는 생각으로 이번 강습회를 준비했다며, 여러가지 이미지 소스를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VBS 활동강의는 데이비드 강(히즈쇼 연구원) 교사가 진행했다. 그는 2025년 히즈쇼 VBS의 주제는 ‘사랑’이라며, 3가지 레슨과 각 레슨별 주제, 워십, 어드벤처 챌린지, 키친 활동에 대해 나누었다. 각 레슨의 바이블 스토리 시간은 배운 내용들을 퀴즈를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구성했다.

동양선교교회에서는 이번 강습회에 참여한 교회들에 2025년 히즈쇼 VBS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킹 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에도 의미를 둔다. 주최측은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교회들이 VB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인교회, “전도의 분업화로 영혼구원의 기쁨 맛보라”

국제가정교회사역원 최영기 목사 초청 ‘행복 페스티벌’ 개최

예수인교회(박정환 목사)가 ‘VIP를 위한 행복 페스티벌’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다.

이 행사는 새신자를 교회에 초청하고 전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영기 목사는 전도한 영혼을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 역점을 두고 설교했다.

국제가정교회사역원 최영기 목사는 27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설교에서, 가정교회 사역의 핵심으로 ‘전도의 분업화’를 강조했다.

그는 “가정교회에서는 전도 책임을 나누어 맡는다”며 “목장은 VIP(전도 대상자)를 모임에 데려오기까지 책임지고,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돕는다”며 “목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전도하려 해도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목회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도의 분업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역을 강조했다.

이어 가정교회 전도의 세 가지 핵

심을 제시하면서, “목장 VIP를 만들어야 한다. 목장은 항상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목장마다 5명 정도의 VIP 명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둘째, VIP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권면하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스턴 서울교회 예를 들며 “목장에서 매주 VIP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VIP를 맡길 만한 목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정성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도와



국제가정교회사역원 최영기 목사. ©기독일보

야 한다. 목장에서 다음 주일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놓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영혼 구원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다. 모든 목장이 VIP를 만들고, 집나가서 돌아온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자도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그는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지혜를 알 때 진정한 신뢰가 생기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며, 로마서 12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다. 섬김을 통해 상처도 치유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

도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며, 자신의 새벽기도 경험을 통해 이를 간증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목장들의 전적인 수고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새벽 기도도 한몫했다’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좇아야 한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라도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가정교회 목장들이 영혼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VIP들이 제자화되어 다시 목자가 되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토마스 멩 기자

예수인교회 주소: 7855 Lindley Ave, Reseda, CA 91335

K타운 연합 사역 ‘동행과 상생’ 차세대 부흥에 나선다

미주복음방송과 교회 연합으로 시작된 ‘동행과 상생(Together & Thrive)’ 사역(공동대표 한기홍 목사, 권준 목사)이 LA 코리아타운의 중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올림픽장로교회(이수호 목사), 재건나성교회(신성욱 목사),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목사)가 ‘LA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연합 모임을 발족하여 동행과 부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세 교회는 지난 3월 첫 모임을 가진 데 이어, 4월 모임에서는 7월 청소년 캠프와 8월 여름 VBS 사역을 연합하여 공동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개별 교회로서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

름 사역을 진행하는 데 인적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느끼는 현실 속에서, 이번 연합은 단점을 보완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동행과 상생’은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다음세대 사역자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은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과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 1회 현장 강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정자 교수, 김용환 교수, 고종필 교수, 주혜영 교수, 권상길 교수, 이세영 교수, 김벌리김전도사, 송한미 전도사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왼쪽부터 이수호 목사, 김창섭 목사, 신성욱 목사. ©tntusa.org



제 10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준비 모임이 4월 24일 오전 11시에 신학대 대표자들이 성시화본부 사무실에서 있었다. ©성시화운동본부

설교 페스티벌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

제10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10월 18일 나성순복음교회서

올해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0월 18일(토) 오전 9시에 개최된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가 이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관해온 ‘남가주 신학 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다.

10주년 기념 설교 페스티벌 준

비를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에 신학대 대표자들이 성시화본부 사무실에서 모였다. 이날 주정부의 인가를 획득한 7개 대학(국제 개혁대학, 그레이스대학, 미성대학, 에반겔리아 대학, 월드미션 대학,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핸리 아펜젤러 대학) 대표들과 성시화 관계자 5명들이 모여 대회 주제 및 장소, 상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송정명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25년도 설교 페스티벌의 주제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로 정했다.

올해 설교 페스티벌은 10월18

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나성 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우수한 설교자에게는 장학금 \$2,000을 수여하며 미주 복음 방송국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며 그 설교를 방송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또, 모범상 주해상, 전달상, 비전상, 발전상, 은혜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 \$1,000씩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미주성시화운동 본부에서는 본 대회 10주년을 기념하여 각 신학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22년 경력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키에 미사로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논현동, 거평타운) 820호 TEL. 02) 542-5554, FAX. 02) 542-5551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김우준 목사, 토렌스조은교회 마지막 설교

5월 인수인계, 청빙 도울 예정

지난 4월 27일(주일), 토렌스조은교회 본당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뒤섞였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교회를 이끌며 목회한 김우준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성도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눈 날이었다. 그는 최근 한국 지구촌교회의 제4대 담임목사로 청빙이 확정되어, 새로운 사역지를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날 ‘감사, 사랑, 축복’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마지막 설교를 전했다. 그는 지난 사역의 첫날을 회상하며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러웠지만,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 목사가 토렌스조은교회에 부임한 것은 고(故) 김바울 목사의 소



2017년부터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해온 김우준 목사가 8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는 고별 메시지를 전했다.

천 직후인 2017년 1월이었다. 그는 “도착 다음 날부터 새벽예배로 사역을 시작했다”며, 당시 장례식과 창립주일 예배가 연이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철저히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고 말했다. 설교 중 김 목사는 특별히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 사역의 기쁨과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며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매월 진행된 지역전도와 전교인이 동참한 ‘복음전도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성도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사랑을 배워가는 곳

이며, 기도와 격려, 칭찬이 중요하다”고며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최근 지구촌교회 임시 제직회를 통해 제4대 담임으로 확정된 김우준 목사는 이번 주 일설교를 마지막으로 토렌스조은교회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5월에는 인수인계를 진행하며, 매주 운영위원회 장로들과 만나 기도하고 청빙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김우준 목사는 1대 담임목사인 김바울 목사 후임으로 제2대 담임목사로 토렌스 조은교회를 섬겨왔다.

주디 한 기자

미주 성결교 제46회 총회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대하라”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조승수 목사) 제46회 총회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하나 되어 전진하는 미주성결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미주 각지에서 모인 대의원과 사모들 282명이 참석했다. 21일 개회예배에서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국총회 류승동 총회장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누구보다 존귀했던 나아만에게도 ‘그러나’의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류 총회장은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권



미주성결교회 제46회 총회가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하나 되어 전진하는 미주성결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성결신문

면했다. 이어서 직전 미주총회장 허정기 목사(지교회), 전성제 목사(함께하는교회), 박상현 목사(은혜의길교회), 이은만 목사(시온성교회), 이기용 목사(우리교회), 최대신 목

사(말씀성결교회)와 미주총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회장들에게 표창했다. 또 신학 장학생들로 선발된 신유철(LA백송교회), 안주은(임마누엘 헬로십교회), 안제니(함께하는교회), 손성진(하비스터스교회), 이은영(휴스턴형제사랑교회), 트리니티 한인교회 이훈재, 조세연 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와이 갈보리교회 청년들과 황규동 목사(성문교회)의 특별찬양, 교단총무 김시은 목사의 광고, 전 미주총회장 최낙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가 마무리됐다. 총회 첫날 하와이 갈보리교회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정성껏 행사를 섬겼다. 한국총회에서도 총회장 류승동 목사를 비롯해 장로 부총회장 노성배 장로, 서기 양종원 목사, 회계 문형배 장로, 교단총무 문창국 목사, 본지 사장 홍재오 장로 등이 참석해 미주성결교회의 부흥을 함께 기원했다.

한국 성결신문 기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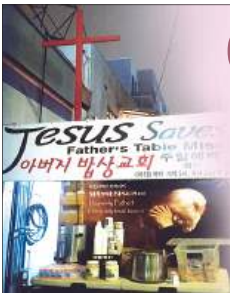
제71회 WPC 남가주노회 정기노회 성료

제71회 WPC 세계예수교 장로회 남가주 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27일(주일) 오후 4시 남가주중앙교회(박종대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기택 목사(LA세계비전교회)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영석 목사(LA광명교회)의 대표기도, 남가주노회 여성중앙단의 특별찬양,

노회장 정요한 목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롬8:26~28) 설교, 박만서 장로의 봉헌기도, 오요하 직전노회장의 축사, 박종대 목사(증경노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요한 목사는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에 제71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

다. 남가주 노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진행되었다. 박종대 증경 노회장께서는 복귀노회를 설립했으며, 오요하 직전 노회장께서는 노회를 옥토발과 같이 터전을 잘 닦아놓았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도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자”고 설교했다. 직전노회장 오요하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요:47~58) ‘영생의 양식’이 진행됐다. 회무처

리를 통해 장광춘 목사와 오세원 목사를 만장일치로 신임회원으로 영입했으며, 성기는 목사가 참관했다. 노회는 총무, 서기보고와 회계보고를 받았으며, 임원선출은 유임되었다. 신임 서기에는 오세원 목사를 선출했다. 회칙수정을 통해 상비부를 신설(정치부 외 7개 부서) 삼입했으며 차기 노회 장소는 LA세계비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정하고 폐회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MG 서울 메디칼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제 1 회

시니어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

골프도 치고! 선물도 받고!

경품 안내

각조
1등



고농축 홍삼 스틱
30개 세트

각조
2등



건강 검사 키트
4종 패키지

(전자 혈압계, 체중계, 맥박 산소 측정기, 혈당 측정 시스템)

각조
3등

GOLF PLUS

스크린 골프 이용권

· 참가전원 ·
풍성한 구디백

대회 날짜

5월 20일 (화) 9AM - 12PM

대회 장소

Golf Plus La Mirada

150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83

참가비

\$20

*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참가 인원

40명 한정

*한 그룹에 4명씩, 총 10그룹

참가 대상

만 65세 이상 시니어



참가 문의

888-847-3098

“니케아 신경, 기독교 최초 삼위일체 교리 공식 확립”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과 신앙고백’ 주제 정기논문발표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강규성)가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과 신앙고백’이라는 주제로 제84차 정기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김광재 박사(개신대 전 총장)가 ‘삼위 하나님: 복음과 신앙고백’ ▲채이석 박사(비전교회)가 ‘동방교회의 신화(神化, Theosis)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보편 신앙고백 가능성: 니케아 신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반포된 지 만 1,700년째를 맞은 ‘니케아 신경(Symbolum Nicaenum, 325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밝히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부와 동일본질인 독생자”라고 천명했다. 특히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거나 “그가 피조물이다”, “무로부터 생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보편교회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저주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유사한 본질’로 보는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한 것으로, 신경은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μὴ ὁμοούσιος·호모우시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독교 최초의 삼위일체 교리를 공식 확립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 니케아 신경, 신앙과 지성의 조화된 고백

김광재 박사는 니케아 신경의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며, 교회 신앙의 본질을 재확인했다. 김 박사는 신경(信經)에 대해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84차 정기논문발표회 참석자 기념 사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공

라틴어로 ‘Symbolum’ 혹은 ‘Credo’라 하며, 교부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는 신앙의 기준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된 신앙고백”이라고 했다.

이어 “신경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한 ‘수동적 규범’으로서 모든 신자가 숙지해야 할 신앙고백”이라며 “사도신경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암송하기 쉽게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니케아 신경에 대해 “동서방 교회 모두가 수용한 신경으로,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의 지적 기여가 컸다”며 “니케아 신경의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다. 기독교가 철학으로 축소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교부들의 노력이 담긴 산물

이라고 했다. 또한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성자가 없던 때가 있었다’는 이론은 철학적 사고에는 맞을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율적 지성을 전제한다”며 “니케아 신경의 형성과 수용 과정에서 교부들은 신앙과 지성을 조화롭게 통합했다”고 했다.

그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언급하며 “어거스틴은 이성과 철학보다 먼저 성경적 기초 위에서 삼위일체를 고찰했다. 신앙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올바르게 형성된다”며 창세기의 삼위일체적 묘사를 인용해 “성경은 태초부터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부들은 철학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도 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인

식하고 기독교 진리를 더욱 높은 차원의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들은 신플라톤주의 등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간섭을 통해 드러난 진리를 중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니케아 신경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며 “이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자,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다.

◆ 니케아 공의회, 삼위일체에 관한 최초 보편적 신앙고백 가능케 한 역사적 공의회

채이석 박사는 “니케아 공의회는 삼위일체에 관한 최초 보편적 신앙고백을 가능케 한 역사적 공의회였다”며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이단을 파문하고 삼위일체 이단 교리 적결을 선언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채 박사는 이어 동방 헬라 교부들의 삼위일체 이해를 설명했다. 그는 “동방 교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 초월자이시기에 인간 지식으로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봤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부정적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이는 ‘부정의 신학(apophasis)’으로 발전했으며, 동방 교회는 하나님을 신비로우며 인간 지식의 영역 밖에 계신 분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 박사는 동방 교회의 구원론을 다뤘다. 그는 “동방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하

님의 자비 행위로 본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서방 교회의 칭의론은 동방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방 교회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육신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성육신을 통한 ‘신화(神化, Theosis)’를 구원론으로 내세운다”고 했다.

채 박사는 동방 교회가 신화 교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창 1:26)는 성경 구절에 근거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헬라 교부들에 따르면, 신화는 그리스도 구속의 결과로 성취되며, 이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라며 “신화란 피조되지 않은 은혜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불멸하며 썩지 않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화 교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화 교리는 서방 교회와 다른 방법론과 문화·역사적 배경에서 나왔지만, 범신론적 위험이 있고, 이신칭의 교리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니케아 신경과 에큐메니칼 공의회 결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양하게 이해하며, 부정의 신학을 방법론으로 삼는 데 따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 박사는 최근 교회의 화해와 연합 운동에도 주목했다. 그는 “자유주의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회 일치 운동에 최근 변화가 있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제3회 분중문화상 후보자 추천 및 시상계획 공고



지난해 제2회 분중문화상 수상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분중문화재단

재단법인 인류에실천분중문화재단(이사장 최충천 목사, 이하 분중문화재단)이 ‘2025년 제3회 인류에실천 분중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공

모한다. 1차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재단 측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소재한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충천 목사)에서 선발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

재단 측이 발표한 올해 시상은 예년과 같이 문화예술 일반과 문화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데, ①문화예술 일반 부문은 ▲성악, 기악, 뮤지컬, 대중가수, 대중음악(클래식, 재즈, 록, 포크 등 포함 각양형태) ▲미술(회화, 조소, 공예, 서예 등) ▲연극/영화(배우 및 감독, 스태프) ▲무용(고전, 현대, 비보이, 모던재즈 등 댄스 및 안무 각양형태) ▲문학(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번역 포함) 분야에서 공모가 진

행되며 ②문화취약계층은 ▲사회최종전 목사)에서 선발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단체 시상을 폐지하고, 개인 후보자만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무엇보다도 인류에 실전 기독교문화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분중문화상(문화예술분야) 시상 예정인원은 약 50여명이다. ▲대상(1명) 5,000만원 ▲

최우수인재상(3명) 각 2,000만원 ▲우수인재상(00명) 각 1,000만원 ▲인재지원상(00명) 각 500만원 ▲문화취약계층 어울림상(00명) 각 500만원으로 총 4억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별도로 시상하고 있는 ‘분중인문문화상’에 대한 제3회 시상식을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초 약간명을 선발하기로 했다”며, 상금으로 3회에 걸쳐 총 4,0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달보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달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보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탁월한 목회자’ ‘예언자적 목소리’ 박조준 목사 삶,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시사회 열려



박조준 목사가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시사회 예배에서 감사하고 있다.

영락교회와 갈보리교회 담임을 역임했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를 설립한 박조준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의 시사회가 24일 오후 서울 CTS 아트홀에서 진행됐다. 박조준 목사는 일제 시절인 1934년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났다. 6.25 전쟁이 한창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친과 여동생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위해 황해도 용매도를 거쳐 이남으로 피난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종교학과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졸업 후 영락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미국 유학을 떠났다.

1960년부터 영은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시작으로 37세에 영락교회 당회장직 수행했다. 당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격동의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일던 시대였다고 한다. 박 목사에 대한 이번 영화 제작 위원장을 맡은 김성이 목사(전 보 건복지가족부장관)는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성장에 주된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을 때 박 목사는 구국을 위해 필요하면 행동하는 목회자였다”고 했다. 1977년 5월 25일 영락교회에서 미군 철수를 반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고, 그해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군 철수 반대를 위한 사절단의 실무책임자로 미국을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요인들을 만나 한국교회의 강력한 뜻을 전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바른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으며, 서울 퍼런 유신정권과 신군부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강단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서 박조준 목사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정중하게 사양했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 청탁을 거절했다. 그런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박 목사는 “죄송합니다. 설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영감이 떠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감이 제게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결국 정권과 등지는 일 때문에 ‘외화밀반출’이라는 조작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영화 제작위 측은 전했다. 박조준 목사는 한국교회의 탁월한 목회자 중의 한 명이었으며, 예언자적 설교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설교자였다. 그가 개척한 갈보리교회는 8년 만에 세계 50대 교회에 선정되기도 했다. 1995년 독립교회연합회를 발족하고, 3년 후인 1998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인합회를 결성했다. 2013년에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를 설립했다. 2002년부터는 ‘세계지도력개발원’을 설립해 4만여 명의 후배 목회

자들을 돕는 사역을 펼쳤다. ‘목회자 나눔’ 모임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부터 ‘목회레슨’과 ‘웨이크신학원(명예총장)’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성경해석과 설교하는 방법 및 목회 경험담을 나눠왔다. 영화 제작위 측은 “이렇듯 박조준 목사는 그의 일평생 동안 한국교회를 향한 수많은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이렇다 할 정당한 평가는 물론 신학계의 학문적인 연구와 평가도 미흡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 그의 사역의 실체가 역사적으로 대중들에게 제대로 각인되고, 그 감동으로 한국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본격 영화 시사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는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박 목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임우성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사무총장)가 인도한 예배에서 설교한 림택권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회장)는 “지금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 혼란”이라며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상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조준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했다. 축사는 길자연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 원대학교 총장), 감경철 CTS 회장, 윤상현 국회의원이 전했다. 영화제작위원장 김성이 목사는 인사말을 했다. 길자연 목사는 “박조준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다. 존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고, 김운성 목사는 “저는 영락교회 6대 담임이고 박조준 목사님은 2대 담임”이라며 “영화를 통해 박 목사님의 삶,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정인찬 목사는 “박목사님은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롤모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조준 목사는 답사에서 “고마우면서도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사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다. 오늘까지 살게 해 주시고 목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남은 생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위해 힘 모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을 중심으로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요 교단, 지역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청, 영덕,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의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산청군기독교연합회는 산불로 인해 지역 내 7곳의 교회와 주민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교회와 군청이 협력해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1,561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17개 교회가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기독교연합회는 1개 교회가 전소됐고, 소속 교회 성도 70여 가정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의도 이어졌다. 속초중앙교회 강석훈 목사는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지역 거점교회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호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생존 중심, 생활 중심, 회복 중심의 단계별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울진 평해감리교회의 이상규 목사는 2022년 울진 산불 복구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기독교연합회 차원의 매뉴얼 구축과 후원금의 적절한 사용, 교회 기반 구호물자 배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한국교회 차원의 통합된 대응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는 5월 22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와 성회가 예정되어 있다. 노형구 기자



경북 의성군 구계리 마을의 산불 피해 모습.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中 사실상 선교 전면금지 주중 한국대사관, 주의 당부



▲중국 북동부 선양의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성(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픈도어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지 항목에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23일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지’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종교 활동 장소와 형태, 허가 절차, 금지 행위, 제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종교 기관이나, 성(省)급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임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그 절차도 엄격해져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승인’한다.

금지된 종교 행위로는 ①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②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③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

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④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⑤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⑥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가 포함된다.

또 ⑦종교 홍보물 제작·판매·배포 ⑧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⑨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⑩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⑪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를 명시해, 사실상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시행세칙 위반 시에는 외국인 종교기관에는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공무원에는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한다고 밝혔다.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에게도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윤준 기자

‘인가 성경’ 판매했는데... 中 가정교회 성도들 ‘유죄’ 판결



중국 내몽골 자치구. © 순교자의소리

내몽골 후허하오터시에서 왕홍란(W-ANG HONGLAN) 전도사를 포함한 기독교인 9명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성경을 판매했는데도 ‘불법 사업 영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삼자교회 성경을 사비로 구매한 후 전도 목적으로 25% 할인된 가격에 팔았는데, 중국 법원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인쇄된 성경을 적법하게 구매했으나 이를 가정교회에서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왕홍란 전도사가 이끄는 이 9명의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행동했다. 그 기독교인들은 직장과 상점에서 번 돈으로 성경을 구매했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도록 손해를 보며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고 했다.

중국 법원은 형량을 차등적으로 부과해 혐의점이 가장 무거운 왕홍란 전도사에게는 징역 4년 10개월, 혐의점이 가장 가벼운 교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왕홍란 전도사에게는 100만 위안(약 2억 원), 혐의점이 가장 가벼운 교인에게는 5천 위안(약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은 이번 달에 발표됐으나, 이미 지난해 11월에 내려진 것으로,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수사 및 재판 중에 이미 복역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왕 전도사는 2026년 2월 14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왕 전도사는 2021년 4월 15일, 73세의 남편 지허잉(JI HEYING)과 아들 지귀룽(JI GUOLONG), 조카 왕지아(WANG JIALE)와 동료 류웨이(LIU WEI) 및 류민나(LIU MINNA), 그리고 다른 세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에 정식으로 기소됐으나, 재판은 2023년 11월에야 내몽골 후이민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재판은 약 50일간 진행되다가 2024년 1월에 종결됐다.

원래 선고는 2024년 12월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장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다. 새로운 선고일은 2025년 3월 27일로 예정됐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됐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9명 전원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여러 보고서 통해 확인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9명의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고 심지어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도 가족한 대우를 받았으나, 정직한 태도와 신실한 간증으로 동료 기독교인뿐 아니라 많은 재판 방청객의 존경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왕홍란을 비롯한 이 기독교인들이 4천만 위안(약 80억 원) 이상의 성경을 합인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노형구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에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참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 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에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에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I(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민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승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예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8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토) (토/주일) 새벽 6:00
(청년/교육부서)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3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라틴 아메리카 선교운동, 연구 · 인프라 · 신학 강화 필요성 제기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라틴 아메리카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약 16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COMIBAM2025 미션 컨퍼런스 개막식. ©CDI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선교 지도자인 윌리엄 테일러 박사가 세계 선교에서, 라틴 아메리카 복음주의 공동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심층 연구와 지역 기반 신학 교육, 선교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세계복음연맹(WEA) 선교위원회 전 디렉터였던 테일러 박사는 최근 파나마 시티에서 열린 ‘COMIBAM2025’ 선교 대회 기간 중 CDI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84세인 테일러 박사는 코스타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으로, 중앙아메리카 현장에서의 사역과 30여 년에 걸친 세계 복음주의 선교 리더십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선교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 3세대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에 대해 “세계 선교의 진정한 주체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리더십, 실천적 훈련 체계, 선교 현장 지원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주도 선교운동의 강점과 한계

CDI는 테일러 박사가 라틴 아메리카 선교운동의 생명력을 기존 선교 단체가 아닌 지역 교회들이 주도한 데서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다”며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등에서 평신도와 작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교 자원봉사자와 교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교 단체, 훈련 기관, 선교사 돌봄 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많은 선교사들이 문화적 충돌과 현실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예외적으로 탄탄한 선교 네트워크와 신학 프로그램, 출판물, 전문 동원가들을 갖춘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은 매년 약 50권의 선교 관련 서적을 출판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취약한 선교 훈련 구조를 더욱 약화시켰다. 많은 프로그램이 폐쇄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테일러 박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관계적·영적 형성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교사 이탈 연구와 인프라 구축 시급

테일러 박사는 특히 선교사 이탈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가 조기 귀국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준비 부족, 지원 부재, 현장에서의 상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 선교사 중 상당수가 언어 습득이나 문화 적응 없이 2년 미만으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간 북아프리카에 있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혼란과 고통스러운 귀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기 귀국은 영적·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며, 강력한 선교사 돌봄 체계와 파송 교회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더라면 많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테일러 박사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몇 명의 선교사가 활동 중인지, 단기·중기·장기 파송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곳이 없다”고 지적하며, 선교사 파송 구조, 목회적 지원 시스템, 교회 동원 상황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신학의 자립 강조

CDI는 테일러 박사가 라틴 아메리카 선교가 외국 신학자들의 프레임워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적 선교 신학을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직접 집필해야 한다”며, 번역서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질 선교학자 베르틸 에크스트롬이 최근 포르투갈어로 출간한 성경적 선교 신학 서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페인어 번역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선교 동원의 표어는 넘치지만, 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며, 표어가 아닌 ‘실질적 내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대 간 대화와 새로운 질문 필요

테일러 박사는 COMIBAM 대회에 참석한 300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세대 간 대화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데랑 선교사, 중간 리더, 젊은 창의적 리더들이 모여 새로운 질문과 도전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철학적 다원주의, 인공지능, 성 정체성, 문화적 변화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美 대형교회 T. D. 제이크스 목사 “딸과 사위에 사역 승계 계획”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 있는 대형교회 포터스하우스(Potter’s House)를 이끄는 T. D. 제이크스(T. D. Jakes) 목사가 최근 주일 설교에서 딸 사라 제이크스 로버츠(Sarah Jakes Roberts)와 사위인 투레 로버츠(Touré Roberts)에게 사역을 계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제이크스 목사는 “2024년 11월 24일에 설교하던 중 무대에서 겪은 ‘가벼운 건강 문제’가 사실은 ‘심장마비’였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NBC의 ‘투데이쇼’에 출연한 그는 “심장이 멈췄을 때 ‘구름에 싸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급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무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내 귀에 대고 ‘심장마비가 심하게 왔다’고 말해 줬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감각 마비, 날카로운 통증 등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잠이 들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으나 거의 죽을 뻔했다”고 전했다.

제이크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올해 말 교회 창립기념일까지 리더십 전환을 공식화하고 자신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미של 기자

남반구 선교 지도자들, <주인의식과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 촉구



화영(Hwa Yung) 목사는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COALA 3.0에서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남반구 선교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CDI

말레이시아 감리교회의 은퇴 주교인 화영(Hwa Yung) 목사가 남반구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사명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갖고, 재정 의존이나 서구 신학 지배에서 벗어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의 보도에 따르면, 화 목사는 4월 27일(현지시간) 저녁, 파나마에서 열린 ‘그리스도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위에’(COALA) 운동의 세 번째 글로벌 컨퍼런스 ‘COALA 3.0’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COMIBAM 2025 선교대회’ 직후 이어져 진행됐다.

말레이시아신학교(MTS) 전 교장으로 활동한 화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COALA 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남반구와 서구 교회 간에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강력한 COALA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은 COALA 운동의 출범 과정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왔으며, 이 운동이 남반구 선교 지도자들이 대위임령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화 목사는 지난해 방콕에서 열린 COALA 2.0 회의에서 작성된 선언문을 언급하며, 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의제와 우선순위 없이 COALA 운동이 “혼란스럽고 산만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운동의 구체적인 형태와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반구 교회를 향한 과제 제시

화 목사는 남반구 교회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먼저 그는 남반구 교회들이 선교 사명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서구 교회가 선교의 짐을 져왔지만, 이제 중심축은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남반구 교회들이 수동적 수혜자에서 적극적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그는 선교의 방향이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선교는 주로 권력과 자원의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향해왔지만, 성경 사도행전은 복음이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확산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그는 교회들이 “수혜자 의식”을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째로, 그는 재정적 지원이 선교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뿐만 아니라 남반구 내부에서도 돈이 선교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그는 서구를 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교회들 간에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반구와 서구 교회 간에 지배가 아닌 겸손과 평등에 기초한 “진정한 상호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 목사는 “지난해 방콕에서 제기했던 과제들과 이번에 강조한 내용 사이에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초대 교회로부터 배우기

화 목사는 사도행전을 예로 들며, 오늘

날 많은 선교 기관들이 신약의 모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용한다면 기존 계획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도적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철저히 의존했다”며, 현대 선교가 주로 권력 중심에서 변두리로 향한 것과 달리 사도행전은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선교가 확산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간적 계획, 방법, 재정 의존을 버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선교 모델을 회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모델을 되찾지 못하면 헛되이 건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 교회를 향한 정중한 비판

화 목사는 서구 교회를 향해 정중하지만 분명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서구 신학은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서구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깊이 뿌리내린 매우 맥락적 신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구 학계가 남반구 기독교의 성장과 변화를 거의 주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했음에도, 서구 신학계는 이를 무시하거나 ‘비교종교학’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화 목사는 서구 교회가 ‘기획과 전략’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영적 의존을 소홀히 하는 ‘관리형 선교’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많은 서구 선교 지도자들 사이에 여전히 ‘무의식적 지배 의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적, 구조적 불균형을 통해 남반구 교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남반구 지도자들에게도 성찰 요구

화 목사는 남반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날카로운 성찰을 요구했다. 그는 “남반구 기독교 사고는 여전히 서구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며,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서구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인도 출신 학생이 지역 부흥사를 주제로 논문을 쓰려 했지만 동남아시아 신학교에서 이를 제지당한 사례를 들며, “우리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서구적 틀에 묶여 있다”고 한탄했다. 또한 그는 남반구의 유능한 인재들이 신학이나 선교보다는 의학, 공학, 경영 등 다른 분야로 향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남반구 교회가 서구 교회의 쇠퇴를 무시하며 ‘역우월감’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신앙 여정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COALA, 비전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화 목사는 COALA가 남반구 지도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통찰을 공유하며, 신학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진정한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임계 질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자 일하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서로를 보호하고 담담함 복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종교 연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학자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79년 런던에서 존 스토틀(John Stott)를 만났던 기억을 회상했다. 당시 스토틀는 “서구 교회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반구로부터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은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아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출)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출)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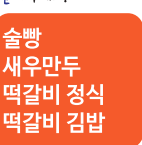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찰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연목회 ‘바울의 율법과 종말’ 정기 세미나

5월 5일(월) 10:30-12:00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남가주연세동문목회자회(회장 권영대 목사, 이하 연목회)는 2025년 정기 세미나를 그레이 스미선대학교의 후원으로 5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바울이 말한 율법과 종말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권영대 목사(연목회 회장)는 “올해 정기세미나를 남가주 지역의 신학교에 일종의 공동 개최를 요청했다. 그레이스미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는 강건 교수를 초청해 바울 신학안에서 율법과 종말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신학적 조화가 오늘 우리의 목회와 신앙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연목회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모교의 정신을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매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일정: 5/5(월) 오전 10-12
장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문의: YONSEIMINISTERS@GMAIL.COM, 권영대(회장)목사 714-486-7282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남가주 연세 동문 목회자회

연목회 세미나

주제: 바울이 말한 율법과 종말의 조화

강사: 강 건 교수

-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졸업
- 고든콘웰 신학교 성경언어학 석사 (M.A. in Biblical Languages)
- 에든버러 대학교 Ph.D. Candidate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신약학 교수

일정:

- 오전 10:00 - 등록 및 접수
- 10:30 - 11:40 강의
- 11:40 - 12:00 토의 및 질문
- 12:00 - 폐회 및 점심

DATE

05.05.2025
10:30 AM - 12:00 PM

LOCATION

은혜 한인교회 웨딩 채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YONSEIMINISTERS@GMAIL.COM / 714 486 7282


주최:

남가주 연세 동문 목회자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북부 한인회, 소셜 서비스 전문 위원회 출범


LA북부 한인회가 지역 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셜 서비스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인회 측은 “전문 인력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니어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A북부 지역 사회에 밀착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소셜 서비스뿐 아니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지원을 위한 전문 위원회도 함께 구성되어, 의료 복지 분야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 및 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한인들은 이제 LA북부 한인회 사무실에



LA 북부한인회(맨 왼쪽 회장 박승목)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소셜서비스 위원회를 설립했다. ©LA 북부한인회

서 직접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 고문으로는 김춘식, 김정석, 유라나 씨가 참여하며, 전문 위원으로는 스테파니 이, 김은희, 쇼나 한, 김도나 씨 등이 봉사에 나선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

려 한인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A북부 한인회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LA 북부 한인회 기사 제공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TALK

BTSSolar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전 12:00
교육부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홍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e I, Torrance, CA 90504
T. (310)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이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12:00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2: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오전 1: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근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느니라]
주일예배 2부
오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후 2:00
오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오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osgca@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연제트(요청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강준민 칼럼

지혜는 좋은 태도를 가꾸려는 마음에 싹틔웁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지식과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레 지혜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잠 16:31상).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것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과 낡은 것을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낡았다고 모두 버려야 할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책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담겨 있고, 어른의 말 한마디에는 세월이 길어낸 통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삭의 지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찢던 우물을 다시 판 데 있습니다. 그 오래된 우물

속에는 여전히 생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절과 인간의 본성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전 속에 담긴 지혜의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원숙한 어른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과 연약함, 완고함, 욕망, 어리석음과 무지가 남아 있음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어리석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혜는 세월의 선물이라기보다, 좋은 태도를 가꾸려는 마음에서 싹틔웁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좋은 태도일까요?

첫째, 날마다 새롭게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곧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닫힌 마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배울수록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 없이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 애씁니다. 살아보니, ‘노력’이 실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하).

둘째,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경청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경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려면 내 마음을 비우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까지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청이 이뤄집니다. 잘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잘 들을 때 분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하). 가장 쉬운 것은 조연하고 충고하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진심으로 경청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고, 자족을 낳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먼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주변도 어둡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일상 속 숨겨진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것에 감사할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는 경탄의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은 경이로움

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경이로움에 멈추어 서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며, 그의 눈은 감겨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또한 말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 조용히 경이로워하는 것이다.”

넷째, 쉽게 판단하지 않고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해합니다.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찍으신 자리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멀리 보는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멀리 보면 큰 문제라 여겼던 것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반감지 않은 감정입니다. 걱정은 비생산적입니다.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지혜란 바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번 모국 방문 중에 전하게 될 첫 번 메시지는 “기도 불패”입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하지만 나이든 어른은 더욱 좋은 태도를 가꾸어, 성숙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신의 입자, 힉스 보손, 과학이 마주한 창조주의 지문 (1)



이 주 형 대표
CM 홀딩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장 3절)

1.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과 과학의 열망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이는 물질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인가?”, “존재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과학만의 것이 아니라,

철학과 종교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근본적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2012년, 전 세계 과학계에 충격을 안겨준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40년간의 실험 끝에 존재가 예측되었던 한 입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힉스 보손(Higgs Boson)’, 세간에서는 ‘신의 입자(God Particle)’라고 불리는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이 입자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가장 깊은 뿌리와 질서, 나아가 창조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 닿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의 여정이, 기독교 신앙이 전해 온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칼럼의 주제입니다.

2. 힉스 입자란 무엇인가? 질량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는 흔히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표준 물리 이론에 따르면 입자들은 본래 질량이 없습니

다. 다시 말해, 전자나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은 본래 ‘무게’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세계—의자, 책상, 사람, 지구—가 이처럼 무게를 지닐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론적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힉스 장(Higgs Field)’과 힉스 입자입니다.

힉스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공간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필드로 가득 차 있으며, 이 필드 안에서 입자들이 ‘마찰’을 겪으며 질량을 얻게 됩니다. 힉스 입자는 그 필드를 구성하는 입자의 실체입니다. 이는 마치 공기 중을 지나갈 때 저항을 받는 것처럼, 입자들이 이 힉스 장 속에서 저항을 받으며 ‘질량’을 갖게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 힉스 입자는 “존재가 존재답게 되는데 필요한 핵심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와 구조가, 보이는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론은,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신비의 경계에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 과학이 마주한 미지의 경외

이제 질문해봅시다. 왜 모든 입자는 동일한 힉스 장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는가? 왜 우주는 그렇게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는가? 왜 우주 상수, 중력의 세기, 힉스 필드의 크기 등은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딱 그 조건에 맞춰져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과학계에서도 ‘우주 미세조정(Fine-Tuning)’이라는 논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놀라운 수수께끼이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조율과 존재의 미학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된 ‘설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가 명령하신즉 그것이 생기고, 그가 말씀하신즉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시편 33:9) (계속)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해외이사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에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다음 세대, 비법은 오직 하나

“우리 손엔 다음 세대 변화시킬 능력 없다. 다만...”



다음 세대, 비법은 없다

케빈 드영 | 김명일 역 | SFC | 70쪽 | 7,500원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도의 본질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들을 제시하여, 독자들 로 하여금 현대 문화 속에서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다

드영의 통찰력과 성경 중심의 접근법은 단순하면 서도 깊이 있는 도전을 제공한다. 이 책은 모든 신자들에게, 특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 게 귀중한 영적 나침반이 될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교회 담임목사이자 리폼드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케빈 드영은 개혁주의에 충실한 교리와 탁월한 통찰력, 재치 있는 문체 등으로 미국뿐 아니라 국내 여러 독자들에게 많은 기쁨과 유익을 주는 뛰어난 저자다.

번역된 드영의 책들은 그리스도 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문제, 사실 거의 대부분이 겪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지혜를 구하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부흥과개혁사에서 나온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2011)>, <미친 듯이 바쁜(2013)> 등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바쁜 일상에 통제를 받는 현대인의 문제를 제대로 다뤘다.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에서는 사회정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역을 교회의 필수 소명으로 보는 문제를 해결한다. 가장 최근 템북에서 나온 <불가능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는 성화(聖化)가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번에 SFC 출판부에서 나온 <다음 세대, 비법은 없다>는 52쪽에 불과한 소책자다. 이 책에서 드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에서 거품을 빼고 본질을 다잡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먼저 그는 다음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분위기를 담아야 하며,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비법은 없다고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12쪽).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 총공세를 벌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통계나 비보는 심심치 않게 울려 경각심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 교회 분위기, 프로그램, 콘텐츠, 음악 스타일 등 모든 것을 수정하려고 애쓰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럴 필요가 없다’

고 겁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오해하지 말자. 드영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음악 스타일을 고민하거나 교회의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문화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화적 참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29쪽)”.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는 교회가 더욱 전문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 아마추어 같은 미성숙함을 보인다면, 아무리 문화 전문가가 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교회에 요구하는 전문성은 열정, 사랑, 거룩함,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만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걸맞은 문화를 찾지 못해 흥미를 잃은 것이라면, 교회는 절대로 그들을 되찾아올 수 없다. 세상만큼 그들을 매료시키고 완전히 사로잡는 전문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전문성 부재라면, 우리는 그들을 되찾을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함과 세상의 거짓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진리, 세상에서 발견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 빛을 기뻐하는 다음 세대는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열정을 볼테을 곳을 찾는다. 교회는 그들에게 뜨거운 영성, 단지 감정적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열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사랑을 원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소금의 역할, 즉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면 거룩한 빛에 사



▲(왼쪽부터) 존 파이퍼, 케빈 드영, 조엘 비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 등이 함께한 모습. ©케빈 드영 페이스북

로잡힌 이들이 모일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깊이가 있어야 한다. 깊고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는 다음 세대를 매료시킨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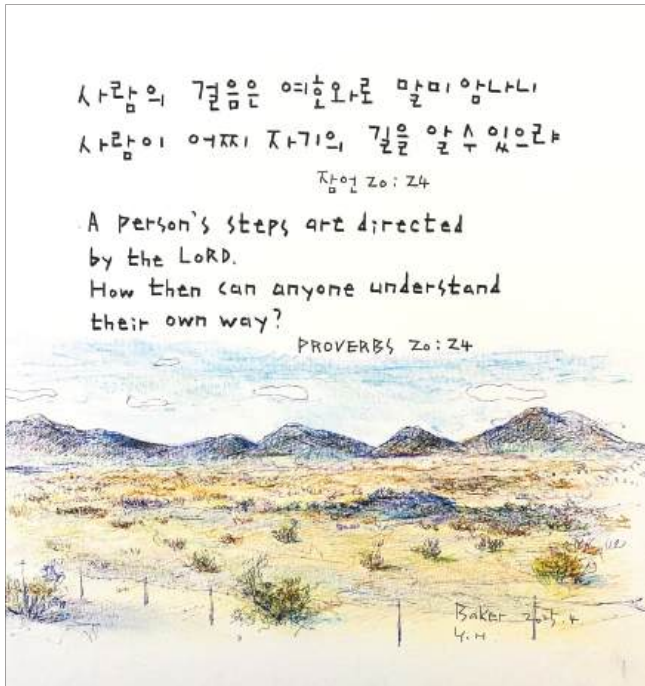
영혼 없이 노래만 하거나 지루한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기쁨으로 순종할 때, 다음 세대는 교회 가운데 분명 놀랍고 영화로운 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 다른 비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비법만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 특히 교회학교 교사나 담당 목회자들,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일꾼들 모두가 저자가 말하는 그 전문성을 갖추어, 교회다운 교회로 다음 세대를 끌어들이고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워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부서: 행정 및 전임 부목사 (Full time)

1. 지원 자격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3)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지원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목사-2인):목회자 2인 중에서 한 분은 현재 담임목사

3. 서류제출 및 마감
• 모든 서류를 ocpc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자: 6/21(토)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4. 문의 허재영 목사: (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1)

히틀러 암살 가담, 성경적으로 문제 없나?

20대 중반부터 촉망받던 신학자
독일 교계 내 만나치 투쟁 기수
평화주의의 고수하다 비폭력 포기
본회퍼 가문, 대부분 암살 동조
윤리적 송고함, 기독교 선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력 거부해

목사로서의 본회퍼: 만나치 비폭력 저항활동 시기

지난 4월 9일 개봉한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나치 치하 독일에서 만나치 투쟁에 뛰어들었다가 나치 패망 한 달 전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미국에서는 작년 11월 22일 개봉했고, 한국에서는 약 넉 달이 지나 본회퍼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80주년 되는 날 개봉했다.

본회퍼 목사는 원래 기독교 윤리 영역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데, 국내에서는 “미친 자가 잡은 운전대” 발언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 본회퍼는 생전 다음과 같이 말한 적 있다.

“미친 자가 차 운전대를 잡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진하는 것을 내가 옆좌석에서 본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데 그치는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다친 자들을 돌보며 죽은 이들을 장사지내는 역할만 할 수는 없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그 미친 자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아야와야 한다.”

이 말은 본회퍼가 직접 글로 남긴 적 없으나, 본회퍼의 형수인 에미 본회퍼가 직접 그에게 들은 말을 훗날 회고한 것이다. 에미 본회퍼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형 클라우

스 본회퍼의 아내였으며, 클라우스 본회퍼는 디트리히 본회퍼와 함께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마찬가지로 1945년 4월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본회퍼의 미국 유니언신학교 시절에 대해 묘사하고, 그 뒤 독일로 귀국해 벌인 투쟁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통상 본회퍼에 대해 어렵듯이 아는 이들은 그가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것 외에, 그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20대 중반부터 독일 신학계에서 촉망받는 신학자였으며,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2년 이후 나치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에 저항하는 고백교회를 주도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로 두각을 드러냈다. 미국에서는 그의 학문적 명성과 만나치 투쟁에 감명받은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그를 미국에 피신시키려 노력할 정도로, 기독교계에서 그에게 보인 관심과 기대는 컸다.

이처럼 히틀러 암살과 쿠데타 계획 가담 이전부터 본회퍼는 독일 기독교계 내부에서 만나치 투쟁의 기수에 섰던 인물이다. 1938년 이전까지 본회퍼의 투쟁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적이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이미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투쟁을 매우 높게 평가해, 직접 간디를 만나러 인도에 갈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화주의의 투쟁을 고수하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부터 폭력 수단 사용에 동조해 히틀러 축출을 위한 쿠데타 세력 ‘검은 오케스트라’ 멤버가 됐다. 자신이 고수하던 기독교적 양심과 비폭력주의적 신념을 끝내 포기한 것이다. 그에게는 대체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을까?

스파이-암살자로서의 본회퍼: 히틀러 암살과 쿠데타 계획 가담 시기

“미친 자가 잡은 운전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회퍼는 더 많은 독일인들과 유대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만나치 저항단체 ‘검은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생애에 관한 작품이다.

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평화주의와 비폭력주의를 포기했다. 여기에는 본회퍼 주변 인물들의 동태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본회퍼 가문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히틀러 축출 혹은 암살에 동조하고 있었다.

본회퍼 자신과 형 클라우스 본회퍼, 그리고 매형인 루디거 쉐라이허와 한스 폰 도나니 모두가 루트비히 베크 장군과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이 이끌던 검은 오케스트라에 가담한 상태였다. 그리고 1943년 3월 7일 히틀러 전용기 폭파 시도, 3월 16일 군사 박물관 폭파 시도에 적극 가담했다. 본회퍼는 유대인 구출, 여타 만나치 저항세력 규합, 영국 정부와의 비밀 협상 임무를 맡았다. 매형인 폰 도나니는 폭탄 준비, 운반, 설치에 가담했다.

이 두 건의 암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본회퍼는 매형인 폰 도나니와 함께 1943년 4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돼 감옥에 갇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본회퍼와 폰 도나니가 받은 혐의는 히틀러 암살 시도에 대한 건이 아니었다.

본회퍼와 그의 매형은 유대인들을 중립국 스위스로 빼돌린 것, 그리고 외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만나치 투쟁을 전개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미리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 사람은 1944년 7월 ‘발키리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본회퍼는 이번엔야말로 암살 계획이 성공해 나치 정권이 전복되고 전쟁이 멈추며 자신을 비롯한 저항세력 인사들이 풀려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거사는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저항세력이 설치한 폭탄은 히틀러를 죽일 만큼 강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고, 곧 대대적인 수색, 검거, 심문, 그리고 처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본회퍼와 폰 도나니를 비롯한 본회퍼 가문 남성들 여럿이 발키리 작전을 시도한 검은 오케스트라 주력 멤버들이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본회퍼는 영화에도 잘 묘사되었듯 매

우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계속되는 취조와 심문, 그리고 옥중 저술활동이 이어졌다. 1945년 2월에는 독일 패망이 거의 임박한 상황이라 독일 영토 전역이 연합군 폭격에 노출돼 있었다. 본회퍼가 있던 형무소도 폭격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다. 사형 집행 전 폭격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여러 차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4월 9일, 본회퍼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영화에서는 이 교수형 장면에서 밧줄로 만들어진 매듭을 보여주는데, 이는 순화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히틀러는 자신을 암살하려던 저항세력 멤버들의 처형에 밧줄이 아닌 철사를 쓰도록 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사형에 처해진 이들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악의적 조치였다.

이렇게 본회퍼는 비폭력주의의 만나치 저항을 포기한 대가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 오늘날 한국 신학계를 포함한 세계 신학계 전반이 이 죽음을 본회퍼의 송고한 기독교적 양심의 증표로 바라본다. 그래서 그가 쿠데타를 꾀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가담한 것을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본회퍼의 방법이 기독교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가 자신의 비폭력주의를 끝내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선량한 이들을 살리려 한 점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분명 높게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로마 제국 시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군 네로를 포함한 여러 로마 황제들의 비정하고 부도덕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폭력혁명이나 쿠데타를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52)”는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계속>



▲영화 속 옥중에서 집필 중인 본회퍼.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 9 (월)~10 (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내 영적 삶을 변화시킨 성경 읽기 계획”

최근 기업가이자 여행가, 스토리텔러인 윌 스펜서는 자신의 팟캐스트에 ‘내 영적 삶을 변화시킨 성경 읽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언젠가는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독성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의무에서 진정으로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꿔줄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부분의 성경 읽기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위기나 히브리서 같은 복잡한 구절을 곧바로 읽는 건 충격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122 성경 읽기 계획’을 시작해 보라고 권유했다. ▽

그는 “새로운 신자로서 처음으로 성경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 성경 읽기 계획을 공유하고 싶다. 이 계획은 제가 하나님 말씀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본문에 몰두하고,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

고, 매일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하나의 포괄적인 수천 년 이야기로 경험하고 싶다면, 그것을 꼭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계획은 5122(5-1-2-2)라고 불리며, 구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시편 5편, 잠언 1장, 구약성경 2장, 신약성경 2장’을 읽으라고 권했다.

그는 “각 부분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라. 책의 마지막 부분(시편처럼)에 도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며 “이 계획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전직 공군 B2 폭격기 시험 조종사였던 친구 개럿이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을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그는 “새 신자로서 처음에는 매일 열 장씩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접었다”면서 “좋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5-1-2-2 계획을 실행했다.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시편과 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역기를 들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한 준비 운동과 같다”면서 이 순서가 훌륭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시편은 먼저 마음을 사로잡는다. 성경은 현대 소설처럼 곧바로 읽히지 않는

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실한 현대 번역본조차도 2천년 이상 된 사고방식과 언어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시편으로 시작하면 더 복잡한 본문을 읽기 전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기쁨, 슬픔, 승리, 고뇌, 슬픔, 그리고 찬양이 쏟아지는 이 시적인 감정들은 곧바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매일 시편 다섯 편을 읽으면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인간적인 경험과 본능적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그는 “다음으로 잠언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잠언으로 넘어가면 감정에서 지성으로 전환된다. 장황한 신학적 담론 대신, 잠언은 이해하기 쉬운 분량의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한다. 대부분 명쾌하며,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일상 속 잠언을 적어도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편에서 잠언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여러분의 정서적, 지적 능력을 모두 자극하여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제 친구 개럿은 이 과정을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음과 정신을 준



©pixabay

비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언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서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을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게 된다. 두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첫째 날, 우주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읽게 된다. 창조와 구원이 나란히! 그리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다른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다”면서 “요한복음 3장과 함께 레위기에서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해 읽어보라.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접한 날은 히브리서 11장과 ‘구름같이 많은 증인’이 등장한 날과 같다”고 했

다. 그는 “이러한 연결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치 성경 속 위대한 영웅들의 갤러리를 거닐며 그리스도를 그들의 상속자이자 완성자로 만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실제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책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라. 하루에 5편씩 총 150편의 시편을 읽으면 매달 시편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 완벽하다”고 했다.

그는 “신약성경은 260장, 구약성경은 748장(시편과 잠언 제외)으로, 구약성경을 한 번 마치기 전에 신약성경을 약 3번 정도 읽게 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시진핑 시대, 중국교회가 나아갈 길은?

제35회 포럼카이로스 국제세미나가 4월 29일(화) 오전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4층 소망실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중국교회의 동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와 동북아선교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콩성공회 필립 위커리(Philip Wickeri) 박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동북아선교연구센터 대표 김종구 목사가 사회와 통역을 맡았다.

홍콩성공회 대주교의 신학 및 역사 연구 고문이자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인 필립 위커리 박사는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 해외연락사무소장을 거쳐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GTU)과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교(SFTS)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다.

위커리 박사는 이날 “중국의 기독교 상황이 이전만큼 유연하지 않다. 특히 종교와 학문에서 그렇다. 기독교나 종교와 관련된 출판이나

협의회 조직도 불가능하다. 특히 3년간 코로나 기간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결국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된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화’와 관련해 “기독교인들은 ‘중국화’를 ‘상황화’로 이해한다. 그러나 ‘상황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징대학교 장즈강 교수는 ‘중국화’를 정치·사회·문화의 삼중 구조로 언급했다.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공산당을 지지해야 하며, 중국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중국의 전통적·현대적 문화와 일정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이 중국화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중국의 ‘종교 정책’을 언급하

며 “종교의 자유는 중국 헌법에 보장돼 있다. 중국 정부는 종교 정책을 발표하면서 첫째로 중국화를, 둘째로 ‘종교 신앙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종교법에는 다소 변화가 생겼다. 그 중 하나는 국가종교사무국(SARA)이 본래 국무원 직속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긴 것이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추세가 그렇다”고 했다.

위커리 박사는 중국 불교의 현황을 언급하며 “약 20~30년 전 중국 젊은이들이 기독교 부흥을 주도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기독교보다 불교나 도교에 심취해 있다. 최근 방문한 중국 불교학원은 남경신학원보다 4배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불교 출신의 대표적 지도자인 자오푸추

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의 불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교 역시 여전히 중국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기독교의 3가지 형태를 대학과 사회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지성적 기독교’, 삼자에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독교’, 민속종교와 혼합된 형태로 민간종교로 분류되는 ‘대중적 기독교’(미등록 회중, 이단적, 반체제)로 분류했다.

그는 ““지성적 기독교인’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표현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인 주오실팡 교수는 나와 40년 가까이 교류해 오고 있다. 그는 ‘전 세계의 공산국가 중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

도록 못 박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뿐인데, 이것은 대단한 손실’이라고 주장했고, 정부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나 절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삼자에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의회는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로 유일하게 공개된 기관으로,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다.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교회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이나 기술적 바탕이 없었기에 전혀 소통할 수 없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중국 내 농촌기독교인들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수많은 통계는 현재 중국에서 도시나 농촌이나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이 목양 활동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레귤레이션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강예슬 미스트롯 1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 | 오후 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